

당진시의회, 민원인‘소 닭 쳐다보듯’

당진시의회의 불친절이 도를 넘는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사무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하나 같이 직원들의 불친절은 물론 무관심한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CTN 취재기자는 지난 7일 오전 시의회를 방문시 공무원들의 무 관심과 무대응을 직접 경험했다. 주민을 대변하는 언론인의 방문에도 이같이 대응하는데 일반 주민의 방문에는 어떻게든 가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주 방문시 민원인을 ‘소 닭 쳐보는 것 같다’고 질타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행태를 보여줘 권위주의적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근 서산시의회의 경우 방문 시 어떻게 왔는지 묻고, 해당 업무에 대해 안내해주는 것과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진시의회는 민원인 휴대와는 달리 의원에 대한 의견은 도가 넘칠 정도다. 취재진이 의회 사무국에서 휴대를

받고 나오던 중 만난 한 의원은 직원 두 사람의 의견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한 언론인은 “주민의 엄청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가 의원의 의견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사무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는 소 닭 보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권위주의의 행태”라고 지적하고 “친절, 친절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진의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본인들만 떠받들려 으쓱대지 말고 방문하는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맞이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 관계자는 “민원인에 대해 불친절하게 응대할 사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오히려 의원님들과 연관된 민원인분들이라 더 조심스럽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불편사항에 대해 먼저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성원 기자

충남 서산 출신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 의정 공헌대상

충남 서산시 대산읍 출신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이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외정 공헌대상’을 수상해 용산의 자람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21일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대회장 홍문표 국회의원)로부터 최고의 상을 수상, 용산구의회 및 용산구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상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 측이 김정재 의장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열정적인 사회봉사활동 등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재 의장은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힘쓰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겸손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직접 두 귀로 듣고 발로 뛰며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김정재 의장은 △경기도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 △국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 △국립대학교 특임교수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제

4대, 제6대, 제7대, 제8대 용산구의회 의원(4선) △제6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행정위원장 △제8대 용산구의회 전·후반기 의장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회의 서울특별시당 자치발전 위원장 △국민회의 용산당원협의회 수석 부위원장 △자치위원회 상임고문(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 △서울특별시 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용산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전)서울시 자연보호협회 부회장 △(전)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

방 위원회 위원 △(전)통일부 통일 교육위원을 역임했다. /가금현 기자

서산감태, 명품화 육성 추진 박차

감태육성 최선, 감태 명품화 쟁결음, 우수성 공유



▲ 서산 가로림만에 펼쳐진 서산 감태를 채취하는 모습

(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지역 감태가 가진 성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감태 명품화에 나선다. 시는 10일 지곡면 청년수산산학교 다목적 회의실에서 ‘감태 명품화 육성지원 용역 결과 보고회’를 열고 가로림만 감태의 서식환경 및 우수성분을 공유했다. 맹정호 서산시장, 한국어촌어항공단, 충남수산자원연구소, 팔봉·도성·중앙·왕산어촌계, 해풍감태영어조합법인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용역사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서산 감태의 갈습함유량 우유의 6배, 철분 및 폴리탄닌, 칼륨·비타민 B1의 높은 함유량 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성진 기자

특히,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 저질 및 일조량 등의 서식환경이 우수해 감태 서식 및 생산에 최적의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외에도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 함유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서산 감태의 우수성, 앞으로의 육성 가능성 등도 언급했다. 또,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진행 중인 감태 시범양식 사업도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가능성도 밝혔다.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가로림만의 감태는 100% 자연산으로 매년 환경에 따라 공급량이 가변적이거나 시범양식 성공 시 공급량 확보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성진 기자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제6대 김택진 센터장 취임

신임 센터장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의 등불로 따뜻한 공동체 구현”



으로 대산읍장, 자원순환과장, 안전총괄과장, 기업지원과장, 시민생활과장 등을 지냈으며, 40여년의 공직생활 후 정년 퇴임했다. /정영주 기자

예산군, 천연기념물 ‘황새’가 텃새로 자리매김하다

방사 8년째, 예산 중심으로 황새 번식 쌍 크게 늘어나

예산군은 따뜻한 봄 소식과 함께 올해도 황새 둥지 탐에서 번식 쌍이 자리를 잡고 산란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예산을 중심으로 총 8쌍의 번식쌍이 30개의 알을 산란했으며, 첫 산란은 1월 28일부터 시작됐고 3월 중순 부화할 예정이다. 현재 예산군에는 6쌍이 둥지를 틀었고 태안군에 1쌍, 아산시에 1쌍이 각각 둥지를 틀었으며, 이외에도 3쌍의 황새가 새둥지 짝을 짓고 둥지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 지원으로 2015년 시작된 황새복원사업은 2016년에 1쌍이 번식을 시작했는데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쌍, 2020년 5쌍, 2021년 7쌍 등 매년 번식 쌍이 증가하는 가운데 큰 결실을 맺고 있다. 아울러 올해 8쌍의 번식쌍 중 5년째 같은 둥지탐에 둥지를 트는 번식쌍도 포함돼 있으며, 방사 2세대 황새가 짝을 지는 경우도 6쌍이나 차지하고 있다. /최용관 기자



▲ 황새 포란 모습

(사진=예산군 제공)

김수경 예산황새공원 연구원은 “사육 경험이 전혀 없이 야생에서 태어난 어린 황새가 스스로 두 번의 겨울을 나고 번식할 수 있는 3년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방사 황새의 야생적응력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야생에 방사된 황새 번식 쌍이 늘어난다는 것은 관내 서식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용관 기자

태안군 이지도 공보팀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지난 25일, 학점은행제 성적 우수상

태안군(군수 가세로) 이지도 공보팀장이 지난 25일 ‘2022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온라인 학위수여식’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690호)에 의거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이지도 팀장은 행정학사예도전, 학위를 취득한 것은 물론 1만여 명이 넘는 취득자 중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둬 이 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가운데 학위증 수여, 시상, 학위취득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필 기자



이지도 공보팀장

이 팀장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행정학사)은 물론 성적우수상 수상으로 가세로 군수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광개토대사업의 홍보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필 기자

충남도, 소재·부품 산업 이끌 전문센터 개소

공주대 내 첨단분말소재부품센터 출범...신규 장비 구축



▲ 첨단분말소재부품센터출범식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는 11일 공주대 천안캠퍼스에서 ‘첨단분말소재부품센터 출범식’을 열고 천안시, 공주대, 20개 관련 기업, 첨단분말소재부품센터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양승조 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 원성수 공주대 총장, 홍순직 첨단분말소재부품센터장,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센터 소개, 협약 체결, 헌관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첨단분말소재부품센터 출범은 지난해 착수한 첨단 분말소재 부품 개발 기반 구축사업의 하나로, 해당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공주대가 주관하고 한 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센터는 분말 소재·부품 전문센터 1개 동과 분말 제조 장비·실험실 평가 장비 등 신규 장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1·2차 연도에는 기존 건물(공

주대 천안공과대학 1공학관)을 활용하고 3차 연도 이후에는 공주대 내 연면적 1300㎡ 규모로 신축되는 기초융합실험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센터의 주요 역할은 △분말 제조 기술, 분말 가공·성형·소결 기술, 분말 소재 융합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군 데이터 구축 및 마케팅 지원 등이다. 또 센터 내 관련 중소기업 연구소 유치와 산업체·대학·대학원생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우리 도는 지역적·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 및 차세대 분말·소재 부품시장의 신산업을 창출할 것”이라며 “기간산업·신산업 육성에 부응하는 기술력 개선으로 금속분말 부품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력한 기업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생산성 증대, 고용 확대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신 기자

전남도 청소년 노벨캠프, 과학인재 육성 씨앗

지난해 21개팀 지원...목포 정명여고 등 10개 우수팀 선정

전라남도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추진한 ‘청소년 노벨캠프’를 통해 ‘목포 정명여고 The Cell’ 등 10개 우수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노벨캠프는 전남도가 노벨상을 꿈꾸는 청소년이 다양한 과학 연구 경험을 하도록 고등학교 이공계 연구 동아리(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18개교 21개 팀이 참가해 10개월간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전남도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연구를 수행하도록 팀별 연구과제 수행활동비를 지급하고, 지역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1차 연구과제 보고서 심사

에서 우수 10개 팀을 선정하고,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은 목포 정명여고 ‘The Cell’, 최우수는 남악고 ‘마벤저스’와 여수 중앙여고 ‘에디슨’이 차지했다. 또 우수에 목포 정명여고 ‘호르몬마스터’, 목포 덕인고 ‘초록도마뱀’, 목포 해인여고 ‘정화해조’, 장려에 광양고 ‘개놈’, 완도고 ‘해조류 알개’, 광양고 ‘희양연화’, 광영고 ‘iridescent’를 선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발전을 이끌어 해성풍력,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성공의 핵심은 창의적 과학인재”라며 “청소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경험을 쌓아 글로벌 과학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성태 기자

보은군, 2022년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조사

보은군은 농촌지역 통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도로상 거리가 2km 이상인 학생이며, 이달 11일까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분기별 출석일수를 계산해 대상 학생에게 하루 편도 1,200원, 왕복 2,400원의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이기국 기자

아간 자율학습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택시비(자부담 1200원)도 지원하며, 이를 통해 700여 명의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학생 유출을 막고, 향토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총 731명의 학생에게 860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했다. /이기국 기자